



신흥시장국 환율 vs 원화 환율

신흥시장국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유동성 축소)를 언급한 이후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프래자일 파이브(fragile five)', 즉 5대 취약 통화로 분류했다. 5월 이후 인도 루피화 환율은 25.1% 급등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브라질 레알화 등도 17% 이상 올랐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제 유동성 확대기에 유입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지 않고 주택 등 부동산 대출 증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의 정합성 및 미래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개혁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 신흥시장국(프래자일 파이브) 환율 변화 ■

구 분	2013. 5. 1일	2013. 9. 4일	상승률(%)
인도 (루피)	53.710	67.175	25.1
인도네시아 (루피아)	9726	11415	17.4
브라질 (레알)	2.004	2.358	17.7
터키 (뉴리라)	1.7932	2.0543	14.6
남아공 (랜드)	8.9920	10.2582	14.1

자료 : 국제금융센터

이에 비해 원화 환율은 신흥국 환율 급등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1일 1,101.6원에서 9월 4일 1,094.5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양호하여 한국 경제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올 1~7월 중 365억 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8월말 외환 보유액은 3,310억 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외국인 증권투자(주식·채권)는 1~8월 중 2조 7천억원의 순유입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신흥시장국들이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990년대말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조차 그 당시에 비해서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이 양호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불안이 우리나라로 파급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공급했던 2조 2천억 달러(2008.10~2013.5, 미국본원통화 증가액) 규모의 과잉유동성이 조정되는 시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국에 비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면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주체들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세상 둘러보기

2012년 동남권 인구 800만 돌파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동남권 인구는 2012년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동남권 인구는 200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증가세도 대경권 및 호남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2012년중 13.84%(305만명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동 기간 중 수도권 인구증가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의 95%를 차지했다.

■ 2000년 이후 권역별 인구 변화 ■

	2000년 [A]	2006년 [B]	2012년 [C]	증감 [C-B]	증감 [C-A]
동남권	7,913,144	7,877,343	8,005,054	127,711 (1.62)	91,910 (1.16)
수도권	22,076,426	23,711,590	25,132,598	1,421,008 (5.99)	3,056,172 (13.84)
충청권	4,804,723	4,935,150	5,118,988	183,838 (3.73)	314,265 (6.54)
대경권	5,321,431	5,184,692	5,203,997	19,305 (0.37)	-117,434 (-2.21)
호남권	5,501,778	5,219,088	5,252,175	33,087 (0.63)	-249,603 (-4.54)
강원권	1,554,688	1,505,420	1,538,630	33,210 (2.21)	-16,058 (-1.03)
제주권	542,368	558,496	583,713	25,217 (4.52)	41,345 (7.62)
전 국	47,732,558	48,782,274	50,948,272	2,165,998 (3.99)	3,215,714 (6.74)

주: ()내는 증감률

유머

한 사람이 친구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직후 전화를 걸어
만약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오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도”라고 신호를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친구가 말하길 “거봉!!”

▶ **채권금리 재상승**

→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이 지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악화된 영향

▶ **일본 및 중국 증시 상승세**

→ 엔화 약세와 더불어 9월 3일 발표된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일본 및 중국 증시 상승

▶ **엔화 환율 하락**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매도세 (9월 5일 엔/달러 환율 : 100.04엔)

● **금리**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30	9/2	9/3	9/4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9	2.66	2.66	2.66	2.66	2.66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9	2.69	2.66	2.68	2.68	2.68
국고채(3년)	2.82	2.88	2.92	2.88	2.92	2.93	2.93
회사채(3년, AA-)	3.29	3.31	3.36	3.25	3.29	3.30	3.31
회사채(3년, BBB-)	8.80	8.89	9.01	8.96	9.00	9.01	9.02

● **주가**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30	9/2	9/3	9/4
KOSPI	1,997.1	1,863.3	1,914.0	1,926.4	1,924.8	1,933.7	1,933.0
애플	13,104.1	14,909.6	15,499.5	14,810.3	-	14,834.0	14,930.9
니케이225	10,395.2	13,677.3	13,668.3	13,388.9	13,572.9	13,978.4	14,053.9
상하이종합	2,269.1	1,979.2	1,993.8	2,098.4	2,098.4	2,123.1	2,127.6

● **환율**

	2012년말	2013. 6월말	2013. 7월말	8/30	9/2	9/3	9/4
원/달러	1,071.1	1,149.7	1,113.6	1,110.9	1,109.6	1,104.1	1,095.9
원/100엔	1,247.5	1,167.2	1,135.4	1,129.2	1,127.9	1,109.0	1,099.6
원/유로	1,416.3	1,498.2	1,476.7	1,470.6	1,465.1	1,456.0	1,443.3
원/위안	171.9	187.0	181.6	181.5	181.3	180.4	179.1
엔/달러	85.86	98.51	98.08	98.38	98.38	99.56	99.67